

철도시설공단 간부직위 11% 폐지

- 모든 간부는 공모 통해 보임기로 -

공단은 그동안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안전사고, 철도수요자를 고려하지 않는 건설로 인한 이용자 불편초래, 분산시공에 따른 비효율·낭비로 인한 부채 급증 등 공단 창설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부장 이상 간부의 11.3%인 28개 직위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大本部, 大處체제로 바꾸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의 4본부 2실 3단 1연구원 5지역본부와 13개 태스크포스 조직을 4본부 1실 1연구원 5지역본부로 대폭 단순화하고자 고위직 4개, 처장 5개, 부장 19개 등 부장이상 간부의 11.3%인, 28개 직위를 폐지하거나 유사부서와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감축
고위직 10명	고위직 6명	△ 4(40.0%)
처장이상 51명	처장이상 46명	△ 5(9.8%)
부장 186명	부장 167명	△ 19(10.2%)
247명	218명	△ 28(11.3%)

이로써 공단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목표를 1년 이상 단축하여 달성하게 된다.

근본 공단의 조직개편은 철저히 기능 및 업무중심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도 시스템분부를 신설하여 제도, 전력, 신호, 차량 등 철도운영 핵심기술을 통합, 기술 연계와 호환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목, 건축 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건설분부로 통합해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건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혁신분부를 신설해 창의혁신 및 설계기준관리, 경영전략과 정보화전략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느슨해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업무를 체계화하고 총무, 계약 등 지원기능과 함께 경영지원안전실로 통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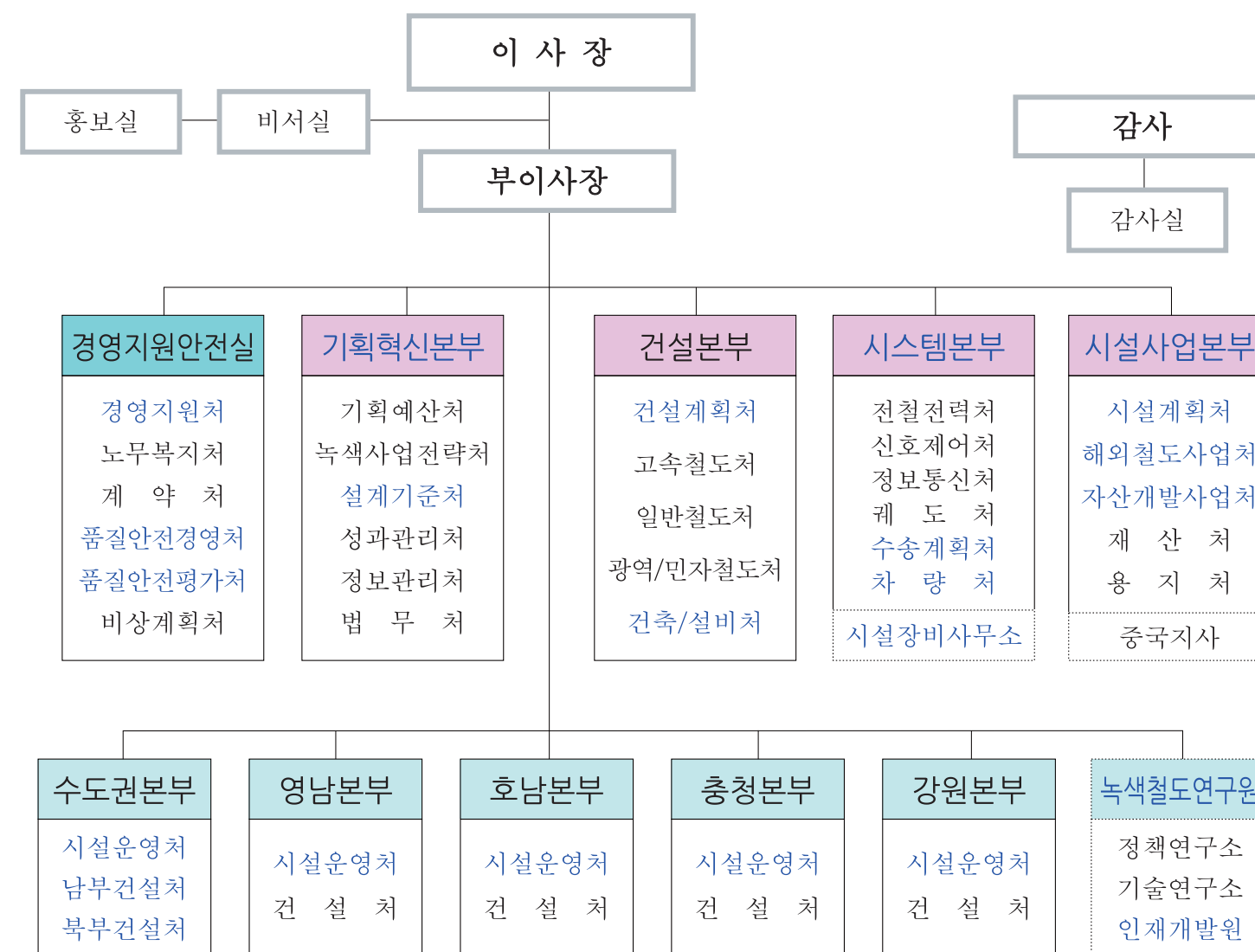
또한, 그간 실적이 미미했던 해외사업분부는 해외철도사업처로 축소하되 사업 추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늘려주고 자산활용과 역세권개발 등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과 통합해 시설사업분부를 신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앞장서도록 할 생각이다.

공단은 조직개편안을 이사회 의결(10.25) 및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1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조직개편과 함께 모든 간부직위에 대해 희망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임명하는 '술 간부직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러한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은 현재 철도투자의 대폭 확대 등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공단은 내부적으로 의식과 체질 면에서 오히려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김광재 공단 이사장은 "그간 방만한 경영, 1일 23억 원의 부채부담 등 비능률, 비효율과 무사안일에 빠진 면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을 바라는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 속에 공단이 제2의 창립을 선언하는 각오로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개혁적인 경영에 적극 동참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국유재산인 소래철교와 진입로에 불법 시설물 설치한 시흥시에 시정요구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24일 국유재산인 구 소래철교와 진입로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막은 시흥시에 대해 2회에 걸친 불법시설물 철거비용 48만원을 청구하고 앞으로 관리청인 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허가 없이 다시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으로 경고했다.

공단은 "구 소래철교는 국유의 시설물로서 누구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를 제거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것은 관리청인 공단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 소래철교는 시흥시와 인천시 동남구 사이에 위치한 폐 협궤철교(궤간 762mm)로 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2월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금지시킨 가운데 보수보강을 한 뒤 9월30일 통행을 재개하였으나 시흥시가 10월 8일 통행금지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에 철도시설공단은 소래축제기간(10월13일 ~ 10월16일)에 맞추어 10월 12일 이를 철거하여 임시 개통하였고, 이어 10월 18일 시흥시와 인천 남동구에 소래철교의 분할매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양 지자체가 이에 합의함으로써 10월 19일 완전 개통하였으나 시흥시가 주민반대, 불법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을 이유로 10월 21일 다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고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날 이를 강제로 철거한 바 있다.



진주역사 '장애물 없는 건축물'로 신축

- 현대적 진주객사로 내년 말 완공 -

공단은 지난 18일 사업비 212억원 규모의 경전선 진주역사 신축공사의 낙찰자로 울트라건설 콘소시엄(울트라건설, 대보건설, 동흥종합건설)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진주역사 신축공사는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진주역사는 연면적 2,874㎡, 지상 2층 규모로 스토리텔링 개념을 도입,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주객사(客舍)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인친화 주차구역의 환경개선, 보행 장애물 제거 및 안내시설 확충, 장애인 화장실 설비를 개선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인증제도*'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인증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위생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등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해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



우리 놀이터가 확 바뀌었어요! KR감사해요!

- 품질안전단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시행 -

품질안전단(단장 김영우)은 지난 20일 'KR 지역과 함께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손잡고 철도변 아파트의 훼손된 어린이 놀이터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는 활동을 펼쳤다.

이번 'NGO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행사는 2007년 대전 중구 용두동 어린이 놀이터를 시작으로 대전에서는 7번째이며, 전국적으로 16번째로, 노후된 놀이터를 아름다운 놀이터로 만들어 철길로 이어지는 밝은 세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난 2007년 6월 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사업의 첫작품인 중구 용두동 아파트 놀이터를 다시 찾아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금번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행사는 파손된 벤치를 교체하고, 미끄럼틀 등 훼손된 일부 구조물을 보강하는 한편 벽화



그리기, 담장도색으로 주변환경을 깔끔하게 조성하여 놀이터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용두아파트 한 주민은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물론 나 같은 노인들도 자주 찾을것 같다"며 공단의 노고를 전했다.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행사는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놀이터 개보수작업을 통해서 공단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고, 환경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이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품질안전단 정진강 기자〉